

남해군, 23일 '독일마을 기억의 밤' 행사...공연·북토크 등

등록 2024.11.20 10:31:14

2024. 11. 23. [토]

기억의 밤 타임테이블

| 시 간 | 내 용 |
|-------------|-----------------------------|
| 15:00~15:30 | 기억의 밤 행사 안내 및 북토크 예약자 등록 |
| 15:30~16:00 | 사전 공연_아트영포엠 |
| 16:00~16:10 | 북토크 공지 및 작가 소개 |
| 16:10~17:20 | 작가 북토크(강용수 작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
| 17:20~18:00 | 작가와 함께하는 '기억의 아치' 메세지 작성 |
| 15:00~18:00 | 여행라운지 앞 '뱅쇼카 이벤트' |

뉴스시스

[남해=뉴스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파독 근로자의 젊은 날의 도전을 기리는 '독일마을 기억의

밤' 행사가 23일 오후 3시 독일마을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참여형 콘텐츠 행사로 사전공연과 북토크가 펼쳐진다.

특히 오후 3시부터는 독일마을 광장에 자리잡은 꽃마차에서는 뱅쇼카가 운영된다. 뱅쇼카는 독일마을과 추모공원을 찾아준 이들이 함께 추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파독근로자의 젊은 날의 열정과 도전을 함께 기억하며 따뜻한 뱅쇼와 히비스커스 차 등을 마실 수 있다.

또한 3시30분부터는 성악과 색소폰 연주의 하모니가 빛나는 '아트영포엠'의 사전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4시부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작가가 출연하는 북토크가 진행된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북토크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링크(<https://lcll.co.kr/btk>)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전신청자 50명에게는 '독일마을 노트와 흑목연필세트' 기념품이 지급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독일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근로자들은 대부분 1940년에서 1950년대 생이다. 이분들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이 추모공원"이라며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기억을 나누는 공간으로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의 밤을 마련,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마을 기억의 밤 및 강용수 작가의 북토크 사전 신청 등 관련 문의는 남해관광문화재단 미래콘텐츠사업팀(055-864-4509)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